



numbers

vol. 289

한국 자영업자 실태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초등학생 우울·불안감 변화
- ② 한국인의 돌봄 인식

[넘버즈 북리뷰]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해설서이자 기도문

2025. 6. 4.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2025년 4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61만 5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2,888만 7천 명, 통계청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참조)의 19%를 차지한다. OECD 기준으로는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돼 자영업 비율은 23%까지 올라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OECD 33개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2023년 기준)은 23%로 일본(10%), 미국(6%)과 비교해 크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자로 살아가는 현실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가늠케 한다. 이렇게 자영업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경쟁에서 탈락해 창업 후 5년 내 폐업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은 사라지고, 4곳만 살아남는다는 얘기다.

이번 <넘버즈 289호>에서는 한국의 자영업자 실태를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특히, 자영업 유입 인구의 고령화와 소득/부채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자영업 성도를 둔 목회자들에게 성도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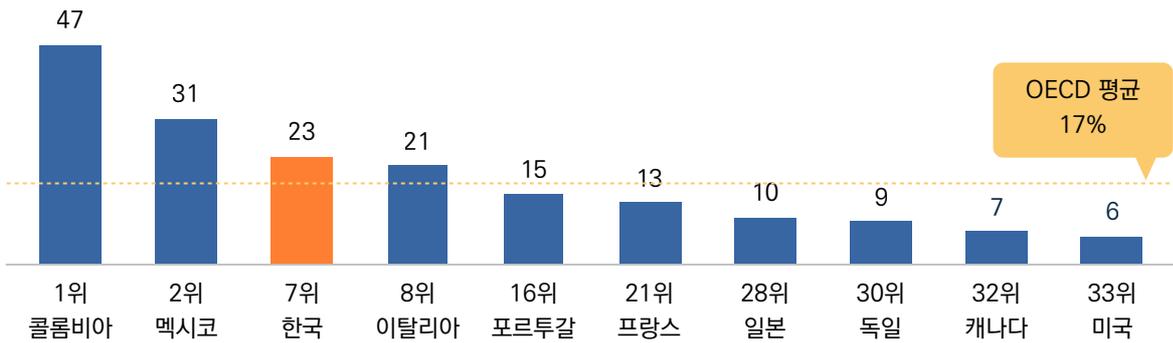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자영업자 일반 현황] 한국 자영업자 비율, 일본·미국보다 2배 이상 높아!

-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국제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OECD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2023년 기준, OECD 33개국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7%였는데, 한국은 23%(7위)로 상위권을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4명 중 1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셈이다.
- OECD 33개국 중 자영업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절반 가까이(47%)됐다. 반면 '미국' 6%, '일본' 10%로 한국이 이들 나라보다 2배 이상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그만큼 자영업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OECD 회원국의 자영업자 비율* (2023, OECD 33개국 중 주요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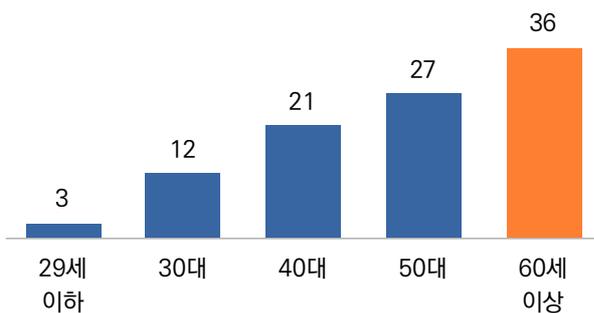
※출처 : OECD, self-employment rate 참조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OECD 조사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하여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과는 상이

자영업자 3명 중 1명 이상은 60세 이상!

-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60세 이상'이 36%, '50대'가 27%로 6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3명 중 1명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29세 이하'(3%)와 '30대'(12%)의 비중은 낮아, 자영업자 연령의 고령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림] 자영업자 연령별 비중 (2023, 전체 자영업자 수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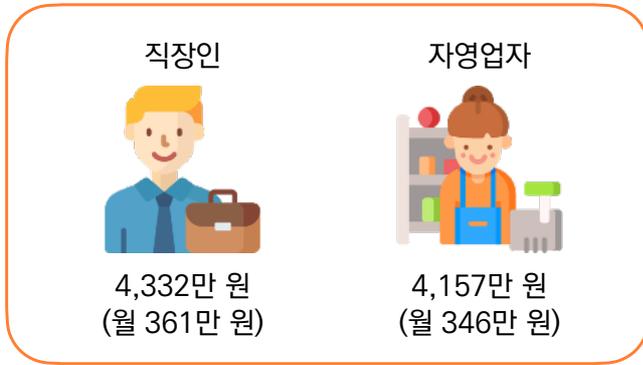
※출처 : 연합뉴스 기사, 자영업자도 고령화...작년 환갑 이상 200만명 첫 돌파, 2024.02.27.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6138900030>)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직장인보다 적다!

-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4,157만 원(월 346만 원)으로, 2023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332만 원(월 361만 원)에 비해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그림] 직장인 vs 자영업자 평균 연소득*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2025.03.27.

※출처 : 조선일보 기사, 직장인 지난해 평균 연봉 '4332만원'... 역대 연봉자는 무려, 2024.12.1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4/12/19/FA42DRGSNJGFVNUJ27LXSD5MJ/?utm_source=chatgpt.com)

*자영업자는 2024년 기준, 직장인은 2023년 기준 임금근로자 소득으로, 자영업자와 직장인 연소득 기준 연도가 다름에 유의, 그러나 직장인의 2024년 소득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자영업자와의 격차는 실제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됨

부업하는 자영업자, 꾸준히 증가 중!

- 낮은 자영업 소득으로 인해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10만 3천 명에서 2024년 15만 2천 명으로 4년 만에 약 5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본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추가 소득을 확보하려는 자영업자들의 대응책이라 볼 수 있다.

[그림] 부업하는 자영업자 수 (각 연도별 1/4분기 기준)



※출처 : 중앙일보 기사, 생존알바 내몰린 작은 사장님 "부업 구하기도 힘들어요", 2025.04.3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32459>)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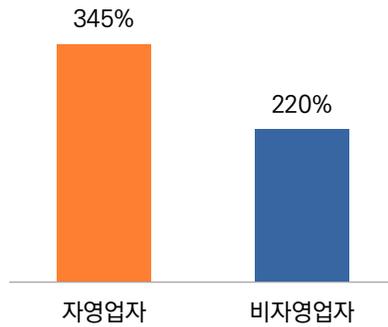
[자영업자의 빚(부채) 및 연체 현황]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 : 3억 4천만 원!

-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사업자 대출이 2억 3천만 원, 가계 대출이 1억 1천만 원으로, 생계와 사업 모두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 한편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2024년 말 기준 345%로, 같은 시점 비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220%)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가 연간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 (2024년 말 기준)



[그림]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LTI; Loan to Income Ratio) (2024년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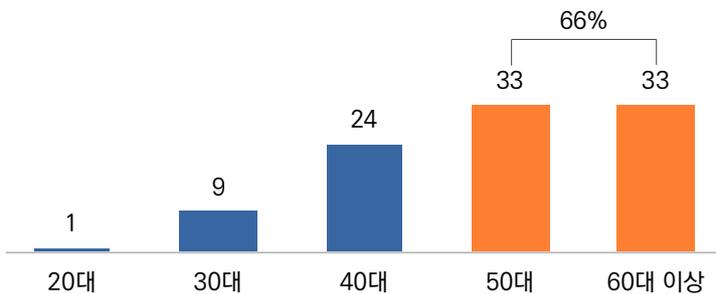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보도자료, 금융안정 상황(2025년 3월), 2025.03.27.

※출처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 보도자료, '자영업자 부채, 소득의 3배 넘어 대출잔액 1천만원 이상', 2025.04.27.

전체 자영업 대출 잔액의 66%, 50·60대 고령층에 집중!

-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의 연령별 비중을 살펴본 결과, 5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33%씩을 차지하며 전체 대출의 66%는 50·60대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20~30대 젊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10%에 그쳐, 자영업 부채의 고령층 집중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그림] 자영업자 전체 대출 잔액 '연령별' 비중 (2024.11.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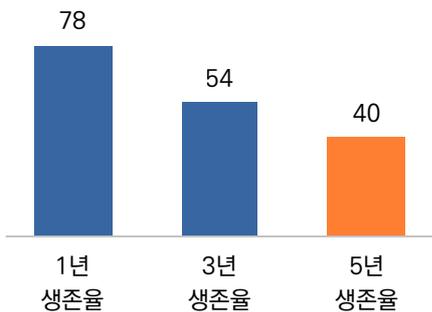
※출처 : 한겨레 기사, 50대 이상 자영업자 빚 740조...절반이 다중채무자, 2025.01.12.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88449.html)

03

[자영업자의 폐업 현황] 자영업자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 이번에는 국세청의 국세통계 자료를 통해 자영업자(100대 생활업종)의 생존율을 살펴본다.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 3년 생존율은 54%, 5년 생존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 후 5년 내 절반이 넘는 60%가 폐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단 10곳 중 4곳만 살아남는 셈이다.
- 창업 관심이 높은 생활업종 상위 20개 중 3년 생존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미용실'(73%)과 '펜션/게스트하우스'(73%), '교습학원'(70%) 순이었다. 반면, '식료품가게' 54%, '부동산중개업' 60%, '실내장식가게' 67%는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

[그림] 자영업자 생존율 (2023, %)



[표] 창업 관심 생활업종(상위 20개) 3년 생존율 순위* (2023, 상하위 각각 3개, %)

	1위	2위	3위
상위	미용실 73%	펜션/게스트하우스 73%	교습학원 70%
하위	식료품가게 54%	부동산중개업 60%	실내장식가게 67%

※출처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창업, 첫째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하는 생활업종 생존율, 2025.04.29.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창업 관심 생활업종)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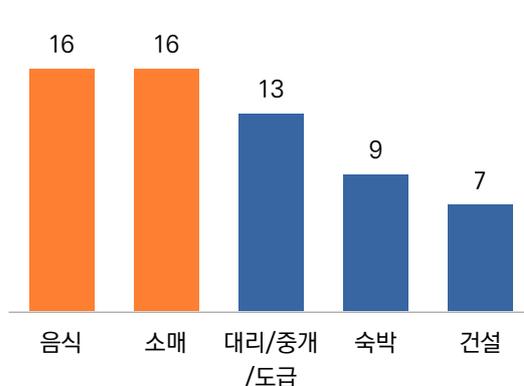
폐업하는 자영업, 음식/소매업이 가장 많아!

- 폐업한 사업자는 2023년 기준 98만 6천 명으로, 100만 명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코로나 유행기(2020년~2022년)보다도 더 많은 수치로, 자영업 환경이 더욱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 폐업률의 경우 2019년 10.3%에서 2022년 8.2%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 9.0%로 반등하며 다소 높아졌다.
- 업종별로는 '음식업'(16%)과 '소매업'(16%)의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대리·중개·도급' 13%, '숙박' 9% 등의 순이었다.

[그림] 폐업 신고(한 사업자) 현황



[그림] 업종별 폐업률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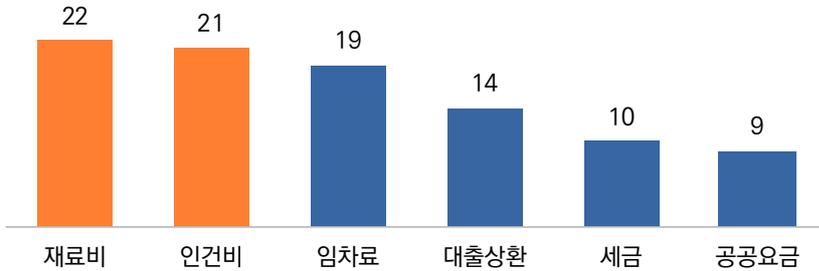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보도자료,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2024.12.26.
*폐업률= 폐업사업자 수 ÷ (총 사업자 수 + 폐업사업자 수)

자영업자를 폐업으로 모는 가장 큰 요인, ‘재료비’와 ‘인건비’!

- 이렇듯 자영업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이유는 비용 상승이 주된 요인이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은 항목은 ‘재료비’(22%)와 ‘인건비’(21%)였고, 다음으로 ‘임차료’ 19%, ‘대출상환’ 14%, ‘세금’ 10% 등의 순이었다.

[그림] 가장 큰 부담 요인 (상위 6개,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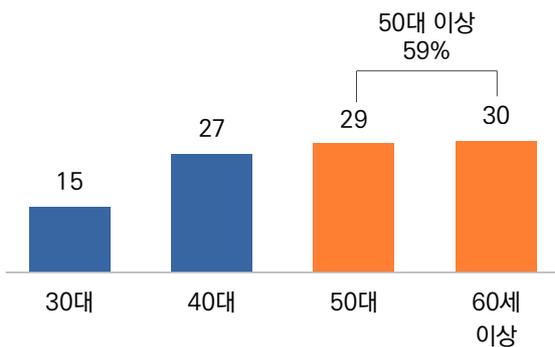
04

[고령자의 자영업 전환]

임금근로에서 자영업 전환자, 절반은 최저임금도 못 벌어!

-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종사자로 전환한 사람의 연령은 ‘50대’ 29%, ‘60세 이상’이 30%로, 전체의 절반 이상(59%)이 50대 이상이었다.
-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 가운데 50대 이상 비율이 59%임을 보면, 직장에서 퇴직한 중 고령자에게 자영업이 주요 일자리 대안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나, 50대 이상 자영업 전환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9%는 월 최저임금(199만 4,440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그림] 임금근로자에서 자영업 전환자의 연령대별 비율* (%)



[그림] ‘50대 이상 자영업 전환자’ 중 최저임금 미만 소득 비중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고용이슈 2024년 겨울호), 20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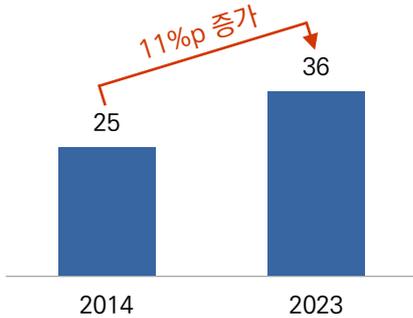
*2006~2022년(1~17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사이 1년 이상 임금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3년(18차 조사)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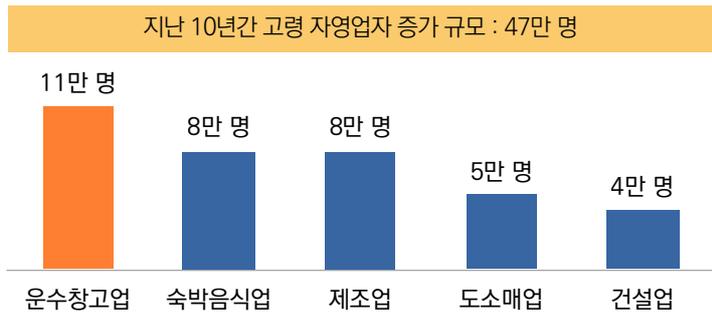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10년간 11%p 증가

- 한국노동연구원(KLI)이 발표한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10년간 전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14년 25%에서 2023년 36%로 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11만 명) 증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숙박음식’, ‘제조’, ‘도소매’ 순이었다. 이 중 전문적 기술과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업종에서 증가한 비중이 61%(29만 명)에 달해, 퇴직 후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자영업에 진입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림]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율
(전체 자영업자 대비, %)



[그림] 지난 10년간 고령 자영업자 업종별 증가 규모
(60세 이상 자영업자 기준, 2014년 대비 2024년 증가 규모, 상위 5개)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자와 소득 불평등’, 2024.05.30.

※출처 :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 2025.05.15.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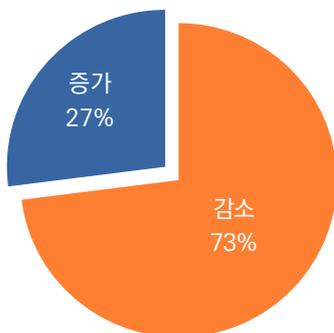
[자영업자의 실적 및 전망]

자영업자 5명 중 3명, 올해(2025년) 매출, 작년보다 감소 예상!

- 2024년 자영업자 실적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73%에 달해, 10명 중 7명이 매출 부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 2025년 전망에 대해서도 매출 ‘감소’를 예상한 비율이 61%, ‘증가’ 예상은 39%로, 향후 실적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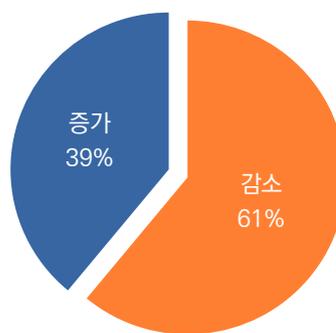
[그림] 2024년 실적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변화



[그림] 2025년 전망

2024년 대비 2025년 매출액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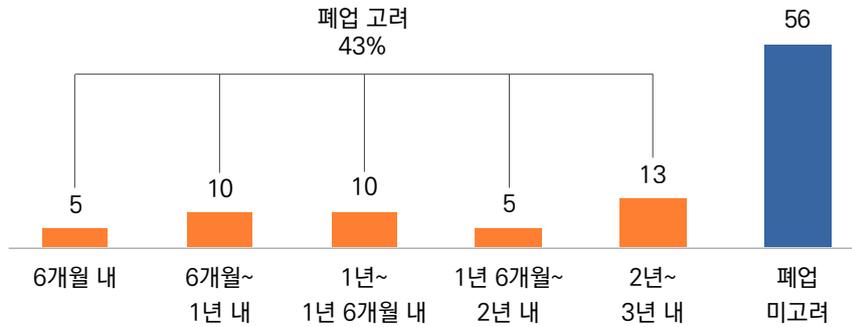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자영업자 43%, 향후 3년 내 폐업 고려!

- 자영업자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등의 요인이 큰 부담이 되는데, 이 어려움이 계속될 경우 자영업자가 선택하는 길은 폐업이다. 자영업자들에게 2025년 이후 폐업을 고려 중인지를 물은 결과, 10명 중 4명 이상(43%)이 향후 3년 이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에 폐업을 생각한다는 비율은 15%였다.

[그림] 폐업 고려 여부 (%)



※출처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2025.02.25.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자영업자 월 평균 소득, 직장인보다 적대!

- 2024년 기준 자영업자의 평균 연소득은 4,157만 원(월 346만 원)으로, 2023년 직장인 평균 연소득 4,332만 원(월 361만 원)에 비해 연간 175만 원 정도 적은 수준이었다.

2.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 3억 4천만 원!

-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2024년 말 기준 3억 4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자 대출이 2억 3천만 원, 가계 대출이 1억 1천만 원이었다. 생계와 사업 모두에서 부채 부담이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3. 자영업 창업 후, 5년 이내 전국 평균 60% 폐업!

- 2023년 기준, 100대 생활업종의 1년 생존율은 78%, 3년 생존율 54%, 5년 생존율은 40%로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율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영상] “100만 폐업의 시대” 요즘 자영업의 충격적인 현실 (머니인사이드)

관련 성경 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28)

목회 적용점

자영업자들의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낮은 자영업 소득으로 부업을 병행하는 자영업자 수도 꾸준히 증가세이고, 자영업자 1인 평균 대출액은 3억 4천만 원에 달한다. 또, 창업 후 5년 내 가게 10곳 중 6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폐업률도 높은 편이다. 게다가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비중은 2023년 기준 36%로 2014년 25%에서 계속 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목회자는 ‘자영업자 성도’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자영업자 성도는 단순히 사업자이기 이전에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존재다. 목회자는 이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형식보다 현실에 맞는 돌봄을 고민해야 한다.

가령 주중 참여가 어려운 자영업자 성도들을 위한 유연한 모임 운영을 제안할 수 있다. 자영업 성도를 위한 맞춤형 소그룹인 셈이다. 시간대 조정(새벽/심야 등) 혹은 온라인을 활용하여 모임을 운영할 수 있다. 같은 관심사 그룹이기에 서로 간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나누고 조언을 줄 때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찾아가는 심방(사업장 방문)을 통해 기도와 상담을 제공하는 사역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채/폐업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지와 격려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단순한 축복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가 자영업 성도에게 더 깊은 위로가 됨을 기억하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초등학생 우울·불안감 변화
2. 한국인의 돌봄 인식

넘버즈 북리뷰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해설서이자 기도문



[초등학생 우울·불안감 변화] 초등학생의 우울감·불안, 지속적 증가 추세!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발표한 '서울학생종단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학생들의 심리 특성 변화, 특히 우울감·불안 등 부정적 정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서울 초등학생의 우울감 점수(3점 만점)는 2021년 0.51점에서 2022년 0.66점, 2023년 0.73점으로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항목(과도한 걱정, 예민함, 신체 수면상의 문제, 부정적 정서) 중 하나인 '과도한 걱정' 역시 2021년 0.44점에서 2023년 0.58점으로 높아져, 초등학생들의 정서적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보고서는 우울감 증가 요인으로 학업 및 교우관계 스트레스, 스마트폰/게임 시간의 증가, SNS와 유튜브의 영향력,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 수면 시간의 감소 등을 지적했다.

[그림] 초등학생의 심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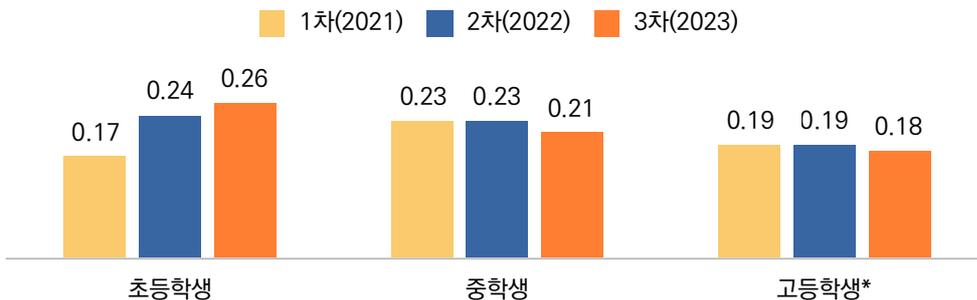


※출처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 2024.12.31.

부정적 정서는 초중고생 중 초등학생만 증가

- 이번에는 '부정적 정서' 수준을 학교급별로 살펴본다. 초등학생의 경우 앞선 우울감, 불안과 마찬가지로 연도를 거듭할수록 부정적 정서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부정적 정서 수준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다소 감소했다.

[그림] 학교급별 부정적 정서 수준 (1점 만점, 점)



※출처 :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서울학생종단연구 2020 3차년도 결과분석 보고서', 2024.12.31.

*고등학생은 인문계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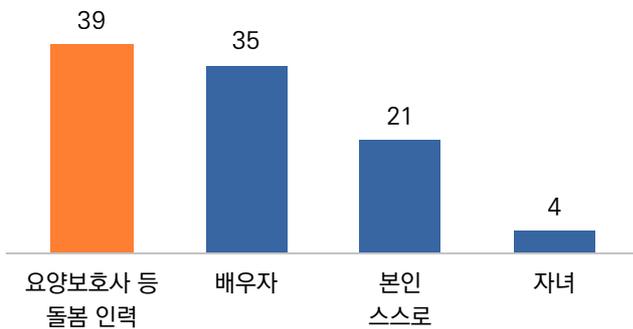


[한국인의 돌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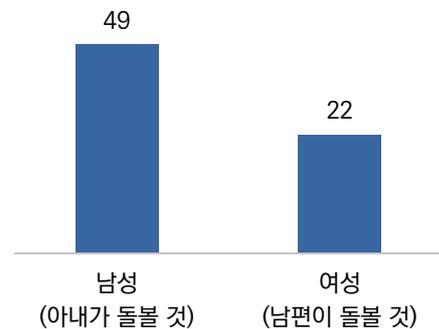
내가 늙고 병들 때, 나를 돌볼 사람은 '요양보호사'!

-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돌봄 인식 관련 보고서(재단법인, 돌봄과 미래)가 최근 발표돼 이를 살펴본다.
- 만 40세 이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본인이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상하는 돌봄 주체를 묻은 결과,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39%)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35%, '본인 스스로' 21% 등의 순이었다.
- 배우자의 돌봄에 대한 기대는 성별 간 차이를 보였다. 남성의 49%는 '아내가 나를 돌볼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여성은 22%만이 '남편이 나를 돌볼 것'이라고 답해 인식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다.

[그림] 본인 돌봄 필요 시 예상되는 돌봄 주체 (만 40세 이상 국민, %)



[그림] 돌봄 필요 시 '배우자'를 돌봄 주체로 응답한 비율 (성별, 만 40세 이상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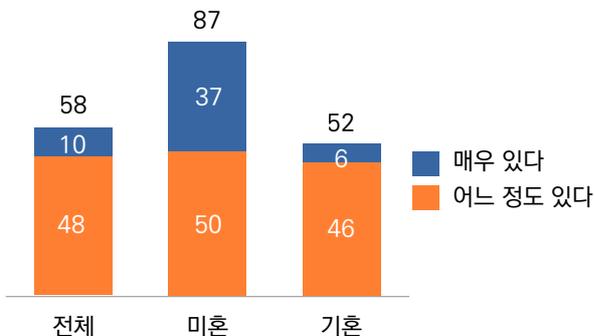


※출처 :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보도자료,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25.05.21.(전국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모바일 조사 병행, 2025.04.25.~0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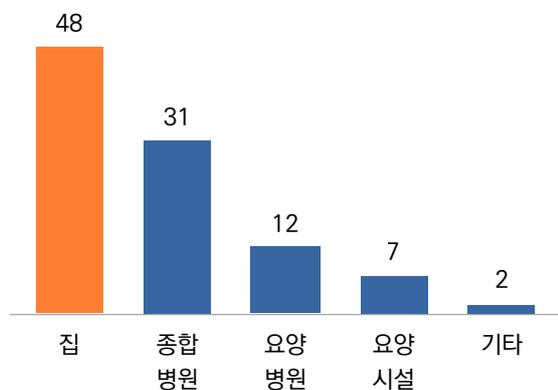
고독사 가능성 '매우 있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6배 이상 높아!

- 고독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58%)이 '고독사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고독사 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특히 '고독사 가능성이 매우 있다' 응답은 미혼자가 37%로, 기혼자(6%)보다 6배 이상 높아 주목된다.
- 한편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는 '자택'(48%)이 가장 높았고, 이어 '종합병원'(31%), '요양병원'(12%) 등의 순이었다.

[그림] 고독사 가능성 인식 (만 40세 이상 국민, '매우+어느 정도 있다' 비율*, %)



[그림] 선호 임종 장소 (만 40세 이상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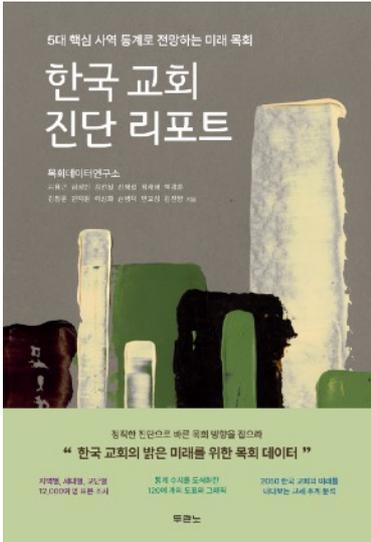


※출처 :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보도자료, 지역사회 돌봄 인식 및 수요조사 결과 발표, 2025.05.21.(전국 만 4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 웹/모바일 조사 병행, 2025.04.25.~04.30.)

*4점 척도

교회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해설서이자 기도문

남성혁 교수
(장신대 선교학 교수)



전도학자로서 늘 한 가지 질문을 되새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위기감이나 자조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며, 그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현재를 정확히 이해하는 일은, 복음 전파 사역을 성경적이며 성육신적인 방식으로 감당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는 목회자, 신학생,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본 도서의 자료들은 근래 수년간 실천신학, 특히 선교학 분야의 학술 논문에서도 빈번하게 인용되는 목회데이터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특히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는 전국의 담임목회자, 일반 성도, 교회에 출석 중인 중고등학생, 한국 교회가 파송한 해외 선교사들을 대상으로 폭넓고 세밀하게 수행됐다.

데이터는 단순 집계에 그치지 않고, 통계데이터사이언스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해 정밀하게 분석됐기 때문에 신뢰성과 적용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 이는 본고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담아내고 분석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목회와 전도의 실제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함을 보증한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 수치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응답과 평신도의 응답, 그리고 일반 대중의 인식을 교차 분석함으로써 교회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인식 사이의 간극을 날카롭게 드러낸다.

본서가 택한 분석 틀은 교육목회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마리아 해리스는 《교육목회 커리큘럼》에서 교회의 핵심 사역을 레이트르기아(Leiturgia), 디다케(Didache), 코이노니아(Koinonia), 디아코니아(Diakonia), 케리그마(Kerygma)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 바 있다.

본서가 다룬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는 이 다섯 사역을 현대 교회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가 단순한 기능적 평가를 넘어, 교회의 본질을 형성하는 신학적 사역의 관점에서 교회의 건강성을 진단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교회의 본질적 사역: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선교

1장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를 진단하다”에서는 예배의 본질과 형식, 참여자의 태도, 온라인 예배의 변화 등을 다룬다. 예배는 교회의 심장과 같으며, 그 회복 없이는 어떤 사역도 온전할 수 없다. 예배는 교회의 영적 중심이기 때문에, 예배 이탈 현상과 예배 만족도와 동반 하락은 한국 교회의 위기 징후를 보여 준다. 통계 역시 참여율 감소와 예배의 의미에 대한 혼란, 형식주의의 확산을 보여 준다. (이하 생략)

*전문은 ‘목회와 신학’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moksins.duranno.com/moksins/view/article.asp?articleNO=40872>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심층취재조사\]① 윤석열 뽑았던 유권자의 9.2%가 이재명, 7.5%는 이준석에 투표했다](#)

KBS뉴스_2025.6.4.

[\[기획\] 수면 위로 떠오른 극우 - 한국 사회 극우의 현주소](#)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5.5.28.

사회 일반

[3월 출생아 10년만에 늘어...1분기 6만5천명, 3년만에 최대](#)

연합뉴스_2025.5.28.

[결혼비용, 강남 3400만원 경상도 1200만원 '극과 극'](#)

동아일보_2025.5.29.

[국내 등록 반려견·반려묘 349만마리...6% 증가](#)

연합뉴스_2025.5.27.

[저출생에 '늦깎이·외국인 신입생' 증가...전문대학 체감 더 커](#)

연합뉴스_2025.5.29.

[4명 중 1명, 생성형 AI 이용...음성·이미지로 활용도 확산](#)

중앙일보_2025.5.29.

[영화 'Her' 실사판 될까... 감정지능 평가에서 인간 뛰어넘은 'AI'](#)

조선일보_2025.5.28.

[이상한 한국, 중산층 60%인데...그 중에 절반이 "나는 하위층" \[2025 중산층 보고서\]](#)

중앙일보_2025.5.28.

[불편한 인간관계, 끊는 게 해답일까](#)

조선일보_2025.5.28.

[아파트 주민 민원 3위가 흡연, 2위는 소음...1위는?](#)

동아일보_2025.5.30.

아동 · 청소년 · 청년

["부모 지위 높을수록 'N수' 더 선택...정시 확대가 불평등 심화"](#)

연합뉴스_2025.5.29.

[韓 청소년 삶은...86% "내 건강 좋다"지만 스트레스·우울감 ↑](#)

중앙일보_2025.5.27.

[어린이들이 다음 대통령에게...“플라스틱·쓰레기 문제 해결해주세요”](#)

한겨레_2025.5.27.

['개인회생' 청년 70% "생활비 때문에"...84%는 돌려막기 경험](#)

한겨레_2025.5.28.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경제 · 기업

[한은, 0%대 성장 절벽에 금리인하로 경기 부양...가계부채는 뇌관](#)

연합뉴스_2025.5.29.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5兆 급증... 증가세 더 가팔라져](#)

조선일보_2025.5.27.

[10년전보다 돈 안쓴다...전 연령대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 ↓](#)

연합뉴스_2025.6.1.

[이재명이 쓴 '공짜야근' 문제...여전히 만연한 포괄임금 악용, 해법은?](#)

중앙일보_2025.5.28.

[지방 공무원 평균 나이 41.4살...5급이상 여성 공무원 34.7%](#)

한겨레_2025.5.29.

국제 · 환경

[트럼프 효과?...유럽인들 EU 신뢰도, 2007년 이래 최고치](#)

연합뉴스_2025.5.29.

건강

[직장·공공장소서 '뽀뽀'...3년 연속 줄던 간접흡연을 다시 늘어](#)

연합뉴스_2025.5.29.

[\[위클리 건강\] 당신의 음주 시작 나이는..."19세 전이면 사망위험 29% ↑"](#)

연합뉴스_2025.5.31.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원로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민선영, 유영민, 김찬술,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주)디엔텍세븐컨설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라잇나우미디어,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치움,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웍, 한국IFCJ 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후원 방법 (국내)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방법 (해외)

외국에서 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담임목사 청빙 컨설팅

청빙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청빙문화는 중직자 중심으로 후보자의 설교 능력을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목사 부임 후 갈등이 생기고 교인이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성도들의 참여와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청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빙 프로세스

01
청빙방식
결정
(공모, 추천)

02
최적화된
목사 Profile
도출 조사

03
1차 선별
도출된 Profile에
근거하여
지원자 선별

04
2차 선별
선별된 후보자
평판 조사

05
최적의 담임목사
추천

청빙 컨설팅 프로그램

전문성

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성도의식 조사 전문성, 청빙 컨설팅 경험,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로 청빙 절차의 신뢰도와 전문성 높음

객관성

외부 기관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음

체계성

성도들의 선호 조건, 교회의 전통과 문화, 비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합한 청빙 후보자 추천

전문성



객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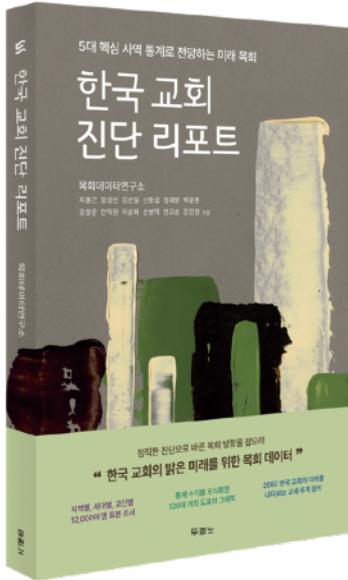


체계성



목회데이터연구소는 귀 교회에 최적화된 목회자 청빙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의 : 목회데이터연구소 (Tel. 02-322-0726) 담당 : 김찬솔 과장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 출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올해 2월 「한국 교회 진단 리포트」를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 했다는 인식 아래, 성도, 목회자, 청소년, 선교사를 대상으로 목회 5대 영역별 대규모 조사를 실시해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진단했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책 활용을 통한 개교회 진단〉

책 맨 뒷장 쿼알코드 통해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별첨 설문지를 사용, 개교회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유명민 간사)

저자

지용근, 임성빈, 김선일, 신형섭, 정재영, 백광훈
김창운, 안덕원, 이상화, 손병덕, 안교성, 김진양

책 구입 안내

Upward	Forward	Inward	Outward	Onward
건강한 교회의 맥박 예배	변화된 삶을 위한 양식 교육	그리스도의 몸 친교	예수의 섬김 봉사	지속되어야 할 대위임령 선교